

근로장애인의 소득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극적 여가활동 및 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지혜, 남지현*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ffect of Income and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Multi-Mediating Effect of Passive and Active Leisure Activities

Jihye Jeon, Jihyun Na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요약 한국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근로장애인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적극적, 소극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득 및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응답한 근로장애인 1,41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ver.3.4)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와 건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소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근로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Abstract Many studie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ople in Korea were conducted. However, no studies focused on the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leisure activities of the disabled people by dividing them into active and passive typ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ncome and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the multi-mediating effects of passive and active leisure activities to suggest ways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of 1,417 working disabled who responded to the 2017 survey on disabled people were analyzed, and SPSS Macro program PROCESS (ver.3.4) was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r the income and health status,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working disabled. Both passive and active leisure activiti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artial multi-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and betwee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examined the need to develop and spread various leisure activities for the working disabled and policy efforts for income and health promotion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working disabled.

Key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Income, Life Satisfaction, Health, Passive Leisure Activities, Active Leisure Activities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0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Nam(Incheon Univ.)

email: skawlgus2622@hanmail.net

Received February 3, 2022

Revised March 8, 2022

Accepted April 1, 2022

Published April 30, 2022

1. 서론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의미하며[1,2],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3]. 최근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속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문화 또는 정치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4].

OECD(2017)에 의하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34개 국가 중 27위에 해당하여 낮은 수준이었고, 전체 한국인은 5.8점인데 비하여 장애인인 5.02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5]. 연구자들은 이미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왜 낮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장애인의 소득과 건강상태[6-8],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9,10], 차별경험 및 사회적지지[11]와 같은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상태나 소득이나[6-8], 장애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13-17], 결혼상태나 가구원 수와 같은 가족관련 요인[18]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 및 접근성,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19,20], 공적서비스 이용경험이나[21] 장애인의 차별경험[11] 등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22-24].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건강상태, 이동 및 접근성, 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차별경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다양한 변인들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 이에, 소득, 건강상태, 여가활동, 차별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여가활동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활동이론에 의하면,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회적 활동 등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26], 특히 여가활동의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27]. 여가활동의 수준은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28,29], 적극적 여가는 스포츠, 운동, 여행과 같은 야외 활동으로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고[30], 소극적 여가는 휴식, TV시청, 컴퓨터 게임과 같은 단순히 시간을 소모하거나 실내에서 이루어지

는 낮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3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 장애인의 여가생활은 주로 TV 시청(88.2%), 휴식(72.8%)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봉사 및 사교활동(12.4%), 스포츠 활동(10.5%)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참여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32].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이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적극적 여가활동은 더 높은 소득과 비용지출, 건강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0].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과 취업여부가 여가활동의 종류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6],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상태가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7]. 그러나 사회가 개별화되어가고 있고 개인 소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은 가구소득[6]이나 주관적 경제상태[7], 자산이나 취업 여부 형태로 조작화할 뿐[8],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6].

더 나아가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주로 소극적 여가활동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선행연구는 여가활동을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을 통합하여 살펴보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4]. 또한, 소득과 여가활동의 정도에 따른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본 논문은 여가활동의 정도를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근로장애인의 개인소득과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여가활동도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다중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근로장애인으로서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건강상태, 소득활동과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인과성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33]. 여가, 근로, 건강, 소득은 모두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명시된 주제영역이기도 하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장애인의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여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10조2). 그러나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개인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여가를 즐길 시간이 줄어들어 삶의 만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34], 근로장애인의 소득과 여가활동, 삶의 만족 간의 관계는 비근로장애인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35]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근로장애인 개인의 건강과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여가활동이 종류에 따라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근로장애인 개인의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이 어떠한 다중매개효과를 지니는가?

연구문제2. 근로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이 어떠한 다중매개효과를 지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 중인 성인 장애인의 개인소득과 주관적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분석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변인은 아래 연구모델과 같이 고려하였고,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원 수, 장애유형,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공적서비스 이용정도, 차별경험정도 변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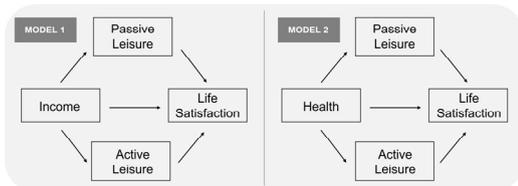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수행하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만 18세 이상 근로장애인의 응답을 분석하였고 분석자료 추출시, 보건복지부의 근로장애인 정의를 참고하여[36],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에 한정하였다. 그 외,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고 총 1,417명을 분석하였다. 2020년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며, 2021년 말 현재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는 일반연구자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주요 변수 특성,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개발한 SPSS 확장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version 3.4)를 사용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다중매개효과 모형(4번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유의성 검증 방식으로 Sobel 검증이 있는데 이는 표본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분석되기 때문에 검증력이 다소 낮은 한계가 있다[37]. 따라서 기존의 검증 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검증 방식을 활용하였다.

2.3 주요변수

2.3.1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총 7문항(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각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도출해내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가 활용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도(Cronbach's α)는 .854인 것으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 개인 월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개인 월 소득 및 주관적 건강상태이며, 개인 월 소득은 월급, 재산 및 금융 이자 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속변수화하였으며, 정규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그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

문항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5점 척도로(1: 매우 나쁨 ~ 5: 매우 좋음)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3.3 매개변수 : 여가활동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여가활동으로 총 14문항(영화 및 공연 감상/관람, TV시청, 컴퓨터/인터넷 사용, 놀이, 문화예술참여, 자기계발활동, 스포츠, 자원봉사활동, 여행, 해외여행, 사교, 자조모임, 가족관련 행사, 지역사회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6,20] 소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나눈 후 각 문항을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소극적 여가활동은 감상 및 관람, TV시청, 컴퓨터 및 인터넷, 도서 및 사진촬영, 가족관련 일(외식 등), 휴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적극적 여가활동은 놀이, 자기계발활동, 스포츠, 봉사활동, 여행, 해외여행, 사교모임, 자조모임으로 구성하였다.

2.3.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다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19,20,25-27],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원 수, 장애유형, 장애정도, ADL, IADL, 공적서비스 이용정도, 차별정도로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성별은 남=1, 여=0으로 조작화하였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혼인상태는 혼인=1, 비혼=0,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 이상=4로 서열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가구원 수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를 합산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1, 정신적 장애=0, 장애정도는 장애정도가 심함(장애 1~3급)=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음(장애 4~6급)=0으로 조작화하였다. ADL은 총 12문항, IADL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합산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빈도 분석 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33], 중증, 경증, 완전자립으로 조작화하였다. 공적서비스 이용 정도는 장애와 관련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1=이용, 0=미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총 32문항을 합산하여 연속변수화하였다. 차별정도도 마찬가지로 지난 1년 간 차별 경험 여부(1=차별 경험, 0=차별 미경험)인 총 12문항을 합산하여 연속변수화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 대상 중, 남성이 68.7%, 연령의 경우, 20대는 6.7%, 30-40대는 25.0%, 50-60대는 54.7%, 70대 이상은 13.6%로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 54.53세). 결혼 상태는, 60.4%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8.5%, 초등학교 졸업이 25.1%,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1%, 중학교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N	%		
Gender	Female	443	31.1		
	Male	974	68.7		
Age	20's	95	6.7		
	30~40	354	25.0		
	50~60	775	54.7		
	70~	139	13.6		
	mean : 54.53(SD=14.08)				
Marital Status	Single	561	39.6		
	Married	856	60.4		
Education	Elementary	355	25.1		
	Middle	217	15.3		
	High	546	38.5		
	University~	299	21.1		
Number of Households	1 person	274	19.3		
	2 person	468	33.0		
	3 person	300	21.2		
	4 person~	375	26.5		
mean : 2.64(SD=1.26)					
Type of Disability	Physical	1,262	89.8		
	Mental	144	10.5		
Degree of Disability	Mild	1,022	72.1		
	Severe	395	27.9		
ADL	Independence	1,396	98.5		
	Mild	20	1.4		
	Severe	1	0.1		
mean : 3.96(SD=0.11)					
IADL	Independence	1,255	88.6		
	Mild	124	8.8		
	Severe	38	2.7		
mean : 3.85(SD=0.37)					
	Min	Max	Mean	S.D	
Public Services		0	20	4.94	2.40
	Discrimination	0	16	1.59	2.47
In dep	Income	3	1,000	182.78	129.46
	Health	1	5	2.93	0.82
Medi	Passive Leisure	0	6	2.57	1.14
	Active Leisure	0	6	1.26	1.12
	Total	0	12	3.83	1.91
Dep	Life Satisfaction	1	4	2.67	0.44

졸업이 15.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의 경우, 2인 가구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인 이상 가구 26.5%, 3인 가구 21.2%, 1인 가구 19.3%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으로 신체적 장애가 89.8%, 정신적 장애가 10.5%로 신체적 장애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의 경우, 72.1%가 심하지 않은 장애, 27.9%가 심한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다. ADL의 경우, 완전자립은 98.5%, 경증은 1.4%, 중증은 0.1%로 나타났다. IADL의 경우, 완전자립 88.6%, 경증 8.8%, 중증 2.7%로 나타났다. 공적서비스 이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4.94회(SD=2.40)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 정도는 약 1.59회(SD=2.47)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개인 월 소득은 최소 3만원 최대 1,000만원, 평균 월 182.78만원(SD=129.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평균 2.93점(SD=0.82)으로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개변수인 소극적 여가활동은 평균 2.57개(SD=1.14), 적극적 여가활동은 평균 1.26개(SD=1.12)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2.67점(SD=0.44)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독립변수인 개인 월 소득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r=.202, p<.001$), 소극적 여가활동($r=.327, p<.001$), 적극적 여가활동($r=.205, p<.001$), 삶의 만족도($r=.387,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소극적 여가활동($r=.198, p<.001$), 적극적 여가활동($r=.130, p<.001$), 삶의 만족도($r=.342,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적극적 여가활동($r=.414, p<.001$), 삶의 만족도($r=.296,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삶의 만족도($r=.287,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

Variable	1	2	3	4	5
Income	1				
Health	.202***	1			
Passive Leisure	.327***	.198***	1		
Active Leisure	.205***	.130***	.414***	1	
Life Satisfaction	.387***	.342***	.296***	.287***	1

*** $p<.001$

3.3 개인 월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검증

다중매개효과 분석 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개인 월 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 매개변수인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 간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개인 월 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소득이 높을수록 소극적 여가활동($coeff.=.260, p<.001$)과 적극적 여가활동($coeff.=.129, p<.01$)의 빈도 또한 높아지며, 주관적 건강상태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극적 여가활동($coeff.=.126, p<.001$)과 적극적 여가활동($coeff.=.158, p<.01$)의 빈도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3. The effect of income and health on passive leisure

Variable	Passive Leisure					
	Coeff.	se	t	Coeff.	se	t
Gender	-.177	.064	2.747*	-.092	.062	1.482
Age	-.017	.003	5.877***	-.017	.003	5.818***
Marital	.079	.070	1.128	.123	.070	1.762
Edu	.269	.032	8.354***	.303	.032	9.517***
Households	.025	.032	0.782	.025	.032	0.787*
Type of Disability	-.145	.127	1.145	-.312	.126	2.478*
Deg. of Disability	-.172	.080	2.140*	-.206	.081	2.557
ADL	.052	.341	0.152	.006	.344	0.019
IADL	.219	.120	1.827	.296	.120	2.468*
Public Services	.044	.014	3.268**	.047	.014	3.468***
Discrimination	.005	.013	0.426	.003	.013	0.243
Income	.260	.046	5.664***			
Health				.126	.035	3.589***
R ²		.256***			.246***	
F		40.092			37.987	

* $p<.05$, *** $p<.001$

Table 4. The effect of income and health on active leisure

Variable	Active Leisure					
	Coeff.	se	t	Coeff.	se	t
Gender	-.189	.070	2.710**	-.172	.067	2.589*
Age	.002	.003	0.524	.003	.003	1.008
Marital	.089	.076	1.170	.100	.075	1.327
Edu	.236	.035	6.756***	.252	.034	7.374***
Households	-.001	.034	0.024	-.002	.034	0.044
Type of Disability	-.164	.137	1.192	-.275	.135	2.040*
Deg. of Disability	-.060	.087	0.689	-.080	.086	0.925
ADL	.510	.370	1.379	.444	.369	1.205
IADL	-.046	.130	0.352	-.007	.129	0.051
Public Services	.085	.015	5.779***	.088	.015	6.011***
Discrimination	-.037	.014	2.641**	-.036	.014	2.649**
Income	.129	.049	2.602**			
Health				.158	.038	4.173***
R ²	.102***			.109***		
F	13.296			14.280		

*p<.05, **p<.01, ***p<.001

다만, 소극적 여가활동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여성인 경우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IADL 측정에 따른 자립도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소극적 여가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여가활동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여성인 경우나,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차별을 적게 경험할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모형 1 : 개인 월 소득, 삶의 만족도 간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

개인 월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석 결과, 모델 1의 설명력은 38.0%로 나타났다(F=61.070, p<.001).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결혼 상태(coeff.=.370, p<.001), 장애유형(coeff.=.213, p<.001), ADL(coeff.=.271, p<.01), IADL(coeff.=-.103, p<.01), 차별정도(coeff.=-.026,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소득(coeff.=.142, p<.001), 소극적 여가활동(coeff.=.061, p<.001), 적극적 여가활동(coeff.=.065, p<.001)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인 개인 월 소득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5. Multi-mediation effect of leisure between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Income → Satisfaction)			
	Coeff.	se	t	
Control	Gender	-.032	.023	1.402
	Age	.000	.001	0.156
	Marital	.370	.025	14.831***
	Edu	-.008	.012	0.650
	Households	.008	.011	0.716
	Type of Disability	.213	.045	4.736***
	Degree of Disability	.044	.029	1.547
	ADL	.271	.121	2.239*
	IADL	-.103	.043	2.414*
	Public Services	-.004	.005	0.748
Discrimination	-.026	.005	5.815***	
Independent	Income	.142	.017	8.611***
	Passive Leisure	.061	.010	6.002***
Mediator	Active Leisure	.065	.009	6.922***
	R ²	.380		
	F	61.070		

p<.01, *p<.001

3.5 모형 2 :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간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석 결과, 모델 2의 설명력은 41.3%로 나타났다(F=70.143, p<.001).

Table 6. Multi-mediation effect of leisure betwee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2 (Health → Satisfaction)			
	Coeff.	se	t	
Control	Gender	-.009	.021	0.420
	Age	.001	.001	1.238
	Marital	.384	.024	15.981***
	Edu	.011	.011	0.937
	Households	.007	.011	0.674
	Type of Disability	.096	.043	2.217*
	Degree of Disability	.023	.028	0.832
	ADL	.212	.118	1.801
	IADL	-.061	.041	1.490
	Public Services	.000	.005	0.007
Discrimination	-.027	.004	6.099***	
Independent	Health	.152	.012	2.530***
	Passive Leisure	.065	.010	6.647***
Mediator	Active Leisure	.057	.009	6.212***
	R ²	.413***		
	F	70.143		

*p<.05, ***p<.001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결혼 상태, (coeff.=.384, p<.001), 장애유형(coeff.=.096, p<.05),

차별정도(coeff.=-.027,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coeff.=.152, p<.001), 소극적 여가활동(coeff.=.065, p<.001), 적극적 여가활동(coeff.=.057, p<.001)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3.6 매개변수의 효과 검증

개인 월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경로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에 유의한 경로임이 밝혀졌다. 개인 월 소득이 높거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밝혀진 본 연구의 최종 결과는 아래의 Fig. 2와 같다.

Table 7. Bootstrapping indirectness effect

Indirect effects	Effective factor	Boot. S.E	95%		
			LLCI	ULCI	
Model 1	Passive Leisure	.015	.003	.008	.024
	Active Leisure	.008	.003	.001	.015
Model 2	Passive Leisure	.008	.002	.003	.013
	Active Leisure	.008	.002	.004	.014



Fig. 2. Research Model Effect

4. 결론

본 연구는 성인 근로장애인의 개인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이 근로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19,20,25-27]와 동일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주요한 요인으로 여가활동의 참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가활동의 종류보다 여가활동의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제한되어 적극적 여가활동보다는 소극적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여가활동의 개발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한 여가활동의 확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면, 비대면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장애인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여가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34]. 근로장애인이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근로장애인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장애인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일 밤이나 주말 낮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둘째, 소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조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여성, 낮은 연령, 고학력자, 정신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IADL 측정에 따른 자립도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소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여성, 고학력자, 심하지 않은 장애, 공공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은 자, 차별경험이 적을 경우, 더 많은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근로장애인의 여가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성, 저학력자, 중증장애인, 공공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은 자는 공통적으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여가활동과 거리가 먼 사람들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적합하고 실천가능한 여가활동

등을 개발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차별경험이 적은 근로장애인일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장애차별을 해소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레저버디”와 같은 면대면 연계 사업이 적용해볼 수 있다. 레저버디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나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일부 장애인 복지관은 주말마다 레저버디와 같은 여가활동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근로장애인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점들을 맞추어가고 차별에 대해 함께 저항할 수 있다. 레저버디와 같은 사업의 확산은 근로장애인의 여가활동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로장애인의 개인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상태와 여가생활 참여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6-8].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건강상태와 여가활동 참여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13-17].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애인의 월 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근로장애인 평균임금은 비장애인 대비 69.3% 수준으로[38], 근로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소득 관련 복지 지원은 비근로장애인 또는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근로장애인은 지원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따라서, 근로장애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거나 소득보전제도와 같은 조세정책의 확대[39]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소득이 낮은 근로장애인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원 확대를 논의해볼 수 있겠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소득 기준 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장애인도 통합문화이용

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이 낮은 소득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득 외의 기준을 고려하여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대상 확대의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 물리적 환경의 미비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여가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소득 외의 미비한 접근성의 문제로 여행을 하기 어려운 근로장애인에게 필요한 여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겠다.

근로장애인은 건강상태도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40]. 비록,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권리적 속성 또한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도를 높기 위해 건강상태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별 또는 장애유형별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 유형, 연령, 성별에 따라 건강 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온,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근로장애인이 건강과 관련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종/직무 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 제작하여 근로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인 근로장애인의 개인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은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애인의 개인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가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 종합적인 인과성을 살피지 못하였는데, 개인소득, 건강상태, 여가활동 정도가 모두 인과 관계 속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임을 보여주었다. 향후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정책 마련 시 이러한 세부요인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월 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에, 해석 상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 종단자료를 활용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활동, 시민사회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살펴보지 못했으며, 주

로 여가활동의 양적 측면만 고려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근로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S. Miller, "Factors that influence quality of life in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adoption of rehabilitation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p.128-139.
- [2] J. W. Hwang, K.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1, pp.57-71, 2009.
- [3] D. H. Kim, M. O.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Vol.25, No.2, pp.209-233, 2015.
- [4] G. S. Yoo,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32, No.1, pp.107-128.
- [5] OECD, 2017.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overseas.mofa.go.kr/oeecd-ko/brd/m_8510/view.do?seq=1338992
- [6] H. S. Kim, Y. S. Le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o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Vol.24, No.4, pp.146-171, 2014.
- [7] J. H. Kim, D. Y. Lee, J. J. Lee, "The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Mediating Effect of Leisure Culture Activ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57, No.1, pp.415-440, 2018.
DOI: <http://dx.doi.org/10.23944/jsers.2018.03.57.3.19>
- [8] J. Y. Kim, C. K. Han, "The Effect of Disability of Household Head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ultiple Mediat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9, No.2, pp.247-269, 2017.
- [9] Y. Y. Moon, S. G. Lee, S. J. Kim,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The Korean Societ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36, No.3, pp.271-291, 2020.
DOI: <http://dx.doi.org/10.33770/JEBD.36.3.13>
- [10] M. Campbell, "Two worlds of disability: Bridging the gaps between the aging network and the disability community", *The Southwest Journal on Aging*, Vol.13, No.2, pp.3-11, 1997.
- [11] J. S. Lee,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oor Disabled Persons -Focus on Registration Disable Persons of Gwang-Ju City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Vol.16, No.1, pp.79-105, 2009.
- [12] J. Y. Song,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1, No.1, pp.146-159, 2021.
- [13] S. Y. Kang, R. Ju,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bility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tatus of Employment: Focusing on the Causal Mediation Analysis with Multiple Mediators, the Participation in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and the Status of Assistant for Job", *Disability & Employment*, Vol.30, No.1, pp.5-24, 2020.
- [14] K. M. Park, M. A. Kim, "Effects of Internet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the Middle-Aged and the Olde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43, pp.99-131, 2019.
- [15] G. S. Le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f the disabled on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for the society of reformed theology*, Vol.19, pp.221-246, 2019.
- [16] S. H. Kim, J. K. Park, E. R. Kim,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Vol.26, No.4, pp.173-195, 2016.
- [17] M. Dijkers, "Quality of life after spinal cord injury: a meta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ablement components", *Spinal Cord*, Vol.35, No.12, pp.829-840, 1997.
- [18] M. O. Kim,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Handicap",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21, pp.73-97, 2003.
- [19] Y. Y. Moon, S. G. Lee, S. J. Kim,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The Korean Societ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36, No.3, pp.271-291, 2020.
DOI: <http://dx.doi.org/10.33770/JEBD.36.3.13>
- [20] M. Campbell, "Two worlds of disability: Bridging the gaps between the aging network and the disability community", *The Southwest Journal on Aging*, Vol.13, No.2, pp.3-11, 1997.
- [21] H. K. Oh, D. J. Jung, "A Study of Determinant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Pers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4, No.3, pp.151-173, 2010.
- [22] K. M. Kim,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before and after Us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Korean Journal of Social*

- Welfare*, Vol.57, No.4, pp.253-274, 2005.
- [23] J. S. Lee,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self stigma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7, No.1, pp.277-299, 2011.
- [24] B. J. Jeon,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ress, Welfare Services Perception and Quality of Life by Disability Types of Childr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10, pp.492-502,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10.492>
- [25] F. A. McGuire, R. Boyd, R. T. Tedrick, *Leisure and Aging: Ulyssean Living in Later Life* (4th ed.). Champaign, IL: Sagamore, 2009.
- [26] N. R. Hooyman, H. A. Kiyak,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9th ed.). Allyn and Bacon, Inc. 2011.
- [27] V. H. Menec, "The relation between everyday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 6-year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58, No.2, pp.74-82, 2003.
- [28] R. Dardis, H. Soberon-Ferrer, D. Patro, "Analysis of leisu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6, No.4, pp.309-321, 1994.
- [29] G. H. Lee, "The Key to Leisure is Human Relationships: Social Exclusion, Active Leisure, and Passive Leisure",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42, No.3, pp.1-11, 2018.
- [30] A. A. Beaton, D. C. Funk, "An evaluation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studying physically active leisure", *Leisure Sciences*, Vo.30, No.1, pp.53-70, 2008.
- [31] M. D. Holder, B. Coleman, Z. L. Sehn, "The contribution of active and passive leisure to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4, No.3, pp.378-386, 2009.
- [3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n the Disabled", 2020.
- [33] J. H. Nam, "A Study on Factor Affecting Housing Welfare Service Us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Andersen Model",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Vol.73, No.3, pp.153-179, 2021.
DOI: <http://dx.doi.org/10.20970/kasw.2021.73.3.006>
- [34] J. H. Kwak, K. W. Hong, "Leisure Inequality on Income: the Relationship of Leisure Time-Cost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32, No.5, pp.293-309, 2017.
DOI: <http://dx.doi.org/10.21719/IJTMS.32.5.16>
- [35] G. S. Yoo, "The Influence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Wage Earner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32, pp.33-51, 2019.
DOI: <http://dx.doi.org/10.22589/kaocm.2019.32.33>
- [3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conomic Activity Surve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20", 2021.
- [37] S. W. Le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Working Poverty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pp.13, 2010.
- [38] H. J. Kim, Y. J. Rim, S. Y. Jo, W. C. Choi, Surve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Disabled Persons, Korea Disabled Employment Agency, Korea, pp.6-158.
- [39] J. J. Kim and J. K Park, "Determinants of Poverty Among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9, No.1, pp.251-274, 2007.
- [40] Y. H. Jun, Y. H. Nam, J. J. Ryu, "Relationships Among Socioeconomic Status,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and Job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Vol.21, No.1, pp.187-208, 2011.

전 지 혜(Jihye Jeon)

[정회원]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학사)
- 2004년 2월 :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과 (사회정책학 석사)
- 2014년 2월 : 일리노이주립대 장애학 (장애학 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장애인복지, 자립생활

남 지 현(Jihyun Nam)

[정회원]



- 201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 학사)
- 2019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20년 3월 ~ 현재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관심분야>

장애인복지, 주거환경